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쉬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리거나 막을 수 없어 관망하며 맞게 됩니다. 시간을 운행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보다 나은 시간들이 온 누리에 편안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5호 2011년 12월 24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2011 세계10대 종교뉴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선두

타임스, RNS, AP 선정, '2011 10대 종교 뉴스 발표'

2011년 한 해 동안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지만 국가에 따라 뉴스를 보는 시각은 달랐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지만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뉴스 비중이 달랐다.

미국대표통신사인 AP는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 사살을 '올해의 10대 뉴스' 1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중국이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10대 뉴스에는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1위에 올랐다. 타임지는 2011 한해를 장식한 표지 인물로 '월가 점령 시위대'를 선정하면서, 종교계 10대 뉴스 선두로 몰몬교의 약진이 두드러진 해였다고 보도한다. 또 미국언론 방송계에서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의 결성체인 'RNS(Religious Newswriters Association)'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소속 회원 300명 이상의 기자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AP통신과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 사살사건을 탐으로 선정했다.

AP통신이 미국 언론 편집인과 뉴스 제작자(PD)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해 선정하는 '올해의 10대 뉴스'에서 빈라덴 사살은 전체 247표 가운데 128표를 얻었다. 동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쓰나미와 방사능 유출은 60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아랍의 봄'과 '유럽연합(EU) 재정 위기'가 3위와 4위에 올랐다. 애플 공동 창업주이자 정보통신(IT)업계 거목인 스티브 잡스 사망은 미국 내에서 대중적 관심을 많이 끌었지만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언론사들이 뽑은 '신흥국의 목소리: 2011년 세계 10

대 뉴스'에선 1위가 동일본 대지진/쓰나미였다. AP가 선정한 뉴스에서는 9위를 차지한 '반월가 시위'를 신흥국 매체들은 4위로 꼽았다. 미국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해 신흥국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AP에서는 10위 안에 선정하지 않은 루퍼트 머독 소유 언론 해킹 파문을 유럽, 미

국 채무위기 소식에 이어 6위에 올린 점도 관심을 끌었다. 잡스 사망도 7위를 차지해 그가 미국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전통적으로, 타임지의 10대 뉴스 선정은 권위가 있다.

먼저 타임지는 2011년의 인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논란이 되고 있는 "월가 점령 시위대(Occupy Wall St.)"를 선정했다. 부와 권력을 소유한 1%에 맞서 더 이상 이들의 노리개나 희생양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하는 99%가 되겠다는 시위는 이제 폭력 양상으로 접어들 정도로, 견줄 수 없는 시위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어서 타임지는 2011년의 10대 종교 뉴스를 발표했는데, 몰몬교를 "올해의 종교(Religion of the Year)"로 선정했다.

(3면으로 계속)

퀸즈장로교회 11년째 '사랑의 과일바구니' 전달



사랑과 나눔의 계절을 맞아 각 교회, 기독교단체들이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선다. 911테러 때 시작한 사랑의 과일바구니를 11년째 이웃들에게 전하는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는 지난 14일 150개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다. 박규성 목사부부와 장미는 사모, 남녀 전도회 회원들이 능

숙한 솜씨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플러싱 109경 찰서와 소방서, 마케도니아교회, 한국요양원, 밀알선교회, 국제장애인선교회, 새생명선교회, 한인봉사센터, 뉴욕상륙회, 홈리스 센터 등 지역 한인커뮤니티 및 선교단체, 병원 등 20곳에 전달됐다. (유원정 기자)



2면

교단중심 교회에서 가능위주 교회로 진화



3면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영적 유익은 있다!



8-9면

아름다운 동행...이민목회 모델 제시



16면

2011년 본지가 보도한 10대 뉴스

사고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세미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는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를 한국 금란교회(김홍도 목사 시무)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말씀의 활력을 새롭게 불어넣는 세미나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통회 자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Lord!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히 호텔

■ 참석대상

-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1년 10월~2012년 2월 29일)
(2012년 3월1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한국현지등록: 50불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 (718)358-7789 이메일:sunny@kapcq.org
LA: 이성자 전도사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항공권/관광 문의 : 유 여행사 (718)463-950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2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 1) 원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2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2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 (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신자의 성공은 믿음과 순종에 달렸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고 자식은 하나도 없었지만 "네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고 의심치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롬4:19-22).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순종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인자하고 적선(積善)을 많이 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길손이라도 시종하고 곤곤한 빛이 보이면 억지로라도 쉬어가게 하고 온갖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자기 양을 잡아 요리를 해서 대접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후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점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겠다. 그는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아들을 얹어놓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했다(창22:1-10).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보거나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옳았다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약2:21-24)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고 축복받고 꿈을 이루고 소원성취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구제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다. 성도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한다. 순종이란 희랍어로 '휘파쿠오'라 하는데 이 단어는 노예가 자기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생활에 있어서 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중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자세인 것이다. 성도가 구원받고 복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생명과 복된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추면 믿음은 즉시 따라오기 때문이다. 순종은 마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징이다. 불경건은 불순종을 낳고 진정한 경건은 순종을 낳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은 하나님 사랑함의 유일한 증거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신속하였고 무조건적 이었고 전폭적이었고 완전하였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체질이였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니오, 싫습니다, 못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예!" 하였다. 순종과 불순종은 길들여진 습관의 모습이다. 순종을 반복하면 순종의 체질이 되고 불평을 반복하면 불평의 체질이 되고 불순종을 반복하면 불순종의 체질이 된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고 복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순종은 축복의 연약이 지속되는 조건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을 하면 크고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미국 주류교단들의 마이너스 성장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백인들이 주축인 교단일 경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일 경우가 많고,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 있고, 교회 건물은 1950년대에 지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단구조는 너무 복잡하기만 해 효율적인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고, 크리스천의 의무로서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하나 둘씩 도시로, 대형교회로 떠나지만 이들을 붙잡는 예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더욱이 목회자들의 도시선호 현상으로, 선덕 시골교회로 가겠다는 목회자들도 절대 부족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세추리(Christian Century)는 미국장로교회, 캐롤 하워드 메릴 목사가 제안하는 10가지 교회 모델들을 제시해준다(Tribal Church: Ten church models for a new generation - What kinds of communities are working well?).

- 1) 대형교회들의 교회개혁 모델: 대형교회의 선교회나 교단 지원을 통해 교회가 개혁된다. 교단이나 교인들이 지켜볼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개혁 모델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보수적이라는 점
- 2) 다문화 회중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며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 바로 지역사회의 변화이다. 지역사회에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있는데도, 연결고리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존 회중이 이민자를 즉 히스패닉이나 아시안 회중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다문화 회중교회가 성립되게 된다. 다문화 회중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닌 중립적 사역 관계로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 3) 신-수도원식 커뮤니티: 도시 생활과 첨단 기술에 대한 분주한 일상에 지친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내는 "간소하면서도 단순한

- 4) 목회자와 비즈니스 결합: 목회자인 동시에 커피 제조업자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수도원 전통에 따라 포도주나 맥주를 제조하는 시골을 교회에 들여 놓는 유행들이 늘고 있다.
- 5) 목회자와 비즈니스 결합: 제프리(Kirk Jeffery) 목사는 목회자인 동시에 커피 제조업자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수도원 전통에 따라 포도주나 맥주를 제조하는 시골을 교회에 들여 놓는 유행들이 늘고 있다.
- 6) 예술/공예 교회: 뉴욕 브루클린의 교회(Art Church)는 교인들이 공예 교실에서 만난다. 이들이 공예나 미술 같은 예술 영역을 사역에 확대시키는 것은 바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며,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랑이나 음악회 등에서 만나 서로의 영

삶"을 추구하는 신앙공동체들이 증가하고 있다(Missio Dei of Minneapolis, Wayne Meisel of the Bonner Foundation)

적 성장을 나누게 되고, 바로 이런 기능들이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7) 음식/식품 교회: 이는 교회공동체와 지역의 파머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8) 비영리기관과 교회의 결합: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9) 팝캐스트 교회: 인터넷이나 아이 폰을 통해 예배 상황을 중계한다. 실제로, 뉴욕의 한 팝캐스트 교회는 50명밖에 앉을 수

10) 인터넷 교회: 코이노니아 회중교회와 두 번째 삶을 위한 제일장로교회는 인터넷상의 교회이다. 즉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교회이다.

교단중심 교회에서 기능위주 교회로 진화

크리스천세추리가 전망하는 새 세대 위한 10교회 모델 소개

미국 주류교단들의 마이너스 성장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백인들이 주축인 교단일 경우,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대부분일 경우가 많고, 도시보다는 시골 지역에 있고, 교회 건물은 1950년대에 지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단구조는 너무 복잡하기만 해 효율적인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고, 크리스천의 의무로서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여기에 젊은 세대들은 하나 둘씩 도시로, 대형교회로 떠나지만 이들을 붙잡는 예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더욱이 목회자들의 도시선호 현상으로, 선덕 시골교회로 가겠다는 목회자들도 절대 부족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세추리(Christian Century)는 미국장로교회, 캐롤 하워드 메릴 목사가 제안하는 10가지 교회 모델들을 제시해준다(Tribal Church: Ten church models for a new generation - What kinds of communities are working well?).



- 1) 대형교회들의 교회개혁 모델
- 2) 다문화 회중 교회
- 3) 신-수도원식 커뮤니티
- 4) 교회와 비즈니스 결합

적 성장을 나누게 되고, 바로 이런 기능들이 신앙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7) 음식/식품 교회: 이는 교회공동체와 지역의 파머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8) 비영리기관과 교회의 결합

9) 팝캐스트 교회

10) 인터넷 교회

대형교회 개혁, 신뢰도 높지만 지역사회 연계는 미비 비즈니스와의 결합, 인터넷 교회 등도 시대편승 모델

미국 사회에서 늘고 있는 교회 모델로, 교회와 비즈니스가 결합해 만드는 유형이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모델은 바로 에벤에셀커피하우스와 내셔널커피니 교회들의 결합이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 중 여성교인들이 보석류를 팔아 교회 재정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도 발전되고 있다.

스 마켓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과 지원,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교회 역시 시골 지역에 농장을 직영하면서 파머스 마켓을 직영하는 경우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없지만 동시에 만 명에게 예배실황을 전할 수 있다. 만약 예배를 지켜본 만 명이 10달러씩만 헌금해준다면 담임목회자의 사례비를 충당할 수 있다.

- 5) 목회자와 비즈니스 결합: 제프리(Kirk Jeffery) 목사는 목회자인 동시에 커피 제조업자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수도원 전통에 따라 포도주나 맥주를 제조하는 시골을 교회에 들여 놓는 유행들이 늘고 있다.
- 6) 예술/공예 교회: 뉴욕 브루클린의 교회(Art Church)는 교인들이 공예 교실에서 만난다. 이들이 공예나 미술 같은 예술 영역을 사역에 확대시키는 것은 바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며,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랑이나 음악회 등에서 만나 서로의 영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교회와 지역사회의 파머스 마켓의 결합과 흡사하다. 비영리기관은 메뉴를 개발해 식사를 준비하고, 교인들이 이용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해 비영리기관 운영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비영리기관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되는 모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서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 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 E-mail. usa@midwest.edu

EM 사역자(part-time) 및 반주자 청빙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와 성가대 반주자를 청빙합니다.

자격(EM사역자)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자격(반주자)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제출서류 - 이력서 (공통)
- 목회소견서 (EM사역자)

접수마감일 - 총원시까지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금을 받습니다.

45개의 복음지입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5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영적 유익은 있다!

리더십저널닷컴, 목회자/정신과의사 척 데그로트가 전해주는 절망의 다양한 유익 소개

1895년 미국 남부 알라바마 주는 비통한 슬픔에 잠겼다. 목화 재배로 유명한 이곳에 갑자기 목화바구미가 들끓기 시작했다. 목화수확은 절반으로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돌았다. 도시는 삽시간에 실직자와 결식자의 탄식소리에 휩싸였다. 그때 일단의 농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들은 밭에서 목화를 뽑아내고 그곳에 땅콩을 심었다. 농부들은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20년 후, 이곳은 '땅콩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요로운 도시로 변모했다.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세워진 목화바구미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우리는 목화바구미에 감사한다. 그 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목화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목회자이자 정신치료전문가인 척 데그로트(Chuck DeGroat)는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절망은 오히려 영적 또는 심리적 유익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Spiritual or Psychological: Dark nights often have many dimensions).



크리스천에게는 좌절이 아닌 어두운 밤이 있을 뿐이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오듯이,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나 아벨라의 성 데레사는 어두운 밤을 영적 정화와 조명의 시간으로 받아들인다. 사도 요한

과 기도로 치료하면 된다고 좌절과 실의에 빠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오랜 경험과 고대 신비주의에서 얻은 경험이 있다. 무조건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배우게 될 것인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북미 상황에서 실패와 삶이 버거울 것은 종종 문제들로 간주된다. 따

게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마디로, 현명한 영혼은 어두운 밤을 바로 구속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지, 결코 단순한 심리적 문제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19세기 설교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칭송받는 찰스 스펔전 목사 역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각한 좌절을 경험했다. 종종 밤잠을

이다. 따라서 정신분석, 운동, 명상과 같은 치료요법이 수반되어야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법에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옛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놓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암담하고 너무 긴 암흑의 밤을 보냈다. 그러

탈진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고침 말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패러다임 전환해야

은 크리스천에게 어두운 밤은 영적 인 측면과 심리적 영역이 서로 교차된다고 이해한다. 즉 마음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어서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정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심리학은 좌절을 단순히 신경 화학적 문제로만 정의한다. 그래서 안정제나 진통제를 투하해 문제가 되는 신경 부분을 치료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처방을 내린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좌절을 너무 영적으로만 상대해, 심리학적 치료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말씀

라서 직선으로 올곧게 나아가야할 인생에서 어긋난 것으로 취급받는다. 결국 목회자들도 좌절, 의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을 보면 목회자의 장애로만 보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은 고난과 좌절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면, 물론 약간의 인간적인 갈등과 의심의 등을 돌렸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진하

못 이루고 그 정도가 심해 설교까지도 못할 정도로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씩이나 침대에 누워도 걱정과 기우, 염려에 밤을 하얗게 세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기대어, 절망이 주는 유익을 심분 받아들여 당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심리학의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간단한 치료법을 망각하거나 지체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인 부대낌이나 고충에는 반드시 심리적인 확증이 요구된다는 것

나 부활이라는 새로운 변형의 사건으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 역시 어둡기만 한 밤에서도 자신을 정화하며 낡은 자아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임해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아니겠는가? (Chuck DeGroat is vice president of Newbegin House of Studies, a therapist, and a pastor at City Church San Francisco)

(1면에서 계속)
선정 이유로는, 물론교가 미래의 종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즉, 인구 대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그리고 교인들의 열정과 사역이 충분히 미래의 종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공화당 예비경선주자들 중, 미트 롬니와 존 헌츠먼이라는 정치가들 역시 물론교인이고, 보수 진

영의 대변자로 알려졌던 글렌 벡이 물론교로 개종하면서, 더욱 더 관심을 끌게 된 것도 물론교의 화려한 상승을 부채질하게 됐다. 두 번째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사제, 로버트 핀의 구속이다. 캔자스 시에서 사목하는 핀 신부는 어린이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확대되자, 다른 지역으로 보내 문제를 접으려고 했다. 그러나

핀은 계속해서 몰래 카메라를 통해 여아들의 사진을 찍었고 경찰에게 지 파급되자 캔자스시 교구는 경범죄로 핀을 구속시키게 됐다. 타임지의 10대 종교 뉴스 중 기독교 관련 뉴스들만 선별하면, 5위. 이집트 콥트 크리스천들의 박해, 9위 메노나이트 교인들의 텍수염/구레나룻 제거로 인한 남성의 권위 문제, 10위 캘리포니아 수정교

회의 파산, 가톨릭교회로의 양도 이전 등이 선정됐다. 그러나 2011년 종교계 지각 변동을 가장 확실히 반영한 보도는 바로 RNS가 뽑은 10대 뉴스이다. 30년 전 결성된 RNS소속 종교기자들은 단연코 AP통신과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사건을 탐 뉴스(No. 1 Religion Story of the Year)로 선정했다. 즉 911테러 주

범의 사살을 반기면서도 용서, 평화, 정의 그리고 보복만이 최선인가? 등에 대한 반성과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2011년의 뉴스로 선정한 것이다. 두 번째로, 2011년 벽두부터 불거진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범죄 증가로 인한 국회 청문회이다. 동 청문회 의장인 뉴욕 하원의원 피터 킹(공화당)은 911테러에 따른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과 반감에 따른 무슬림 커뮤니티의 극단화에 따른 잇따른 혐오범죄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청문회를 통해 대부분의 미국계 무슬림들이 중도, 온건주의자들인지 극단적이거나 원리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다. RNS가 선정한 종교계 10대 뉴스들은 다음과 같다: (7면으로 계속)

사 고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교서점 (718)762-0011
한국서적 (718)762-1200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서점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캐네티컷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탬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조지아 아틀란타 말씀사 (678)957-1021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텍사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필라안디옥교회 (610)828-6760
새한교회 (215)402-992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회계사 (704)332-5656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
훌륭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입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12년도 MDiv 및 DMin 과정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 모집**

1. 미래

- 미군 군목 장교 진출
- 미주요교단 안수가능
- UCLA 와 Stanford가 속한 종합대학인준 기관을 통한 세계수준의 학교발전
- 영어강의를 통한 세계화 교육
- 이민목회담임, 부교역자,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 사역
- 세계선교지에 신대학장, 교수, 선교기관장, 선교사 사역
- 알타사역자 양성

2. 높은수준

- ATS인준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영성과 제자도, 교회성장학)
 - 찰스 크래프트 (내적치유, 영적전쟁, 문화인류학)
 - 에드 실보소 (Global Transformation)
- IT, 음대, 간호대 복수전공을 통한 Crossover 전문인 양성
- 미 주류 종합대학 기준의 철저한 학습과정과 결과평가

3. 편안한 교육

- 정부 학비 보조 가능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On-Line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시스템
- 영어강의 / 통역강의
-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편리한 교통
- 교수들의 멘토링 지원
- 이중언어 및 성적우수자 전액 장학금 지원
- Writing / Speaking Center 무료운영

S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담 및 입학문의
213-481-1313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주님! 이런 제가 어떻게?

장영희라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계시다. 그는 한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1급 장애인으로 평생 4개의 발, 그러니까 두개의 다리와 목발을 짚은 두개의 다리도 살아있는 여인이다. 그런데 또 유방암에 걸려서 두 번의 수술을 해서 겨우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새 척추 안으로 전이가 된 사실을 알았다. 그때 그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걸림돌이 디딤돌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게 유방암에 척추암을 선언 받은 소아마비 1급장애자의 입에서 나올만한 얘기인가? 소아마비 하나만 해도 인생에 힘들 걸림돌이다. 그런데 유방암에다가 척추 안까지 걸림돌이라 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암벽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자가 또 물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선

하게 만드셨다면 어찌 당신의 인생은 불행에 불행 또 불행의 연속입니까?” 하고 질문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분 때문에 이 모든 걸림돌들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번번이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밀려오는 파도를 올라타는 즐거움을 노래하듯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영성을 타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첫 번 성탄절 배후인물인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라” (눅2:19). 상상도 못

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마음깊이 담아 두고 생각했다. 마음속에 담아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드디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 신앙은 놀라운 일, 납득이 되지 않는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해서 불만과 원망으로 몰아가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담아 담아두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수 천 번이라도 외치고 싶지 않았겠는가? 남자를 한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배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할 얘기가 많겠는가? 요셉이라는 남자가 마친가. 자기와 함께 잡자리를 하지 않은 약혼녀가 점점 배가 불러온다면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는가?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했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조용히 해결하

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지키어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본문의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제가 이것 이렇게 견디기는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질문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희망을 선택하라”는 책이 있다. 희망을 위한 10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이것을 선택하면 희망적인 인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3번째가 바로 “왜”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어떻게”라고 수습과 해결책을 찾을 때

비로소 희망이 열린다는 말이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인생의 걸림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수습과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헛된 질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고 뜻밖의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푸/른/초/장

이정의 목사 (신촌교회)



성경에는 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장차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마침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은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아이를 낳았다고 세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때문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섭리의 주역이자 주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베들레헴 고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다. 결정적 하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새백에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백은 모두에게 방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을 벌써 알고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맞아 주는 사람이 없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그 날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를 선지자 중

서 나시리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그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초소를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 때문에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어찌 시골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동시에 지독한 편견입니다. 이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은 보석을 돌이라고 하고 돌을 보석이라고 우기게 만듭니다. 이 편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여 예언과 계시를 무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기득권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옆에 끼고 다니며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서를 매일 필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알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관심은 신앙의 삶 보다는 뇌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안락이 흐려졌고 그 결함은 자신은 물론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눈도 멀게 하고 그 시대를 보는 분별력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예수님 오신 날 김새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지 않던지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오신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와 만난 사람은 멀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었던 여관집 주인도 몰랐는데 그 멀리 동방 오늘의 이라크 땅에서 온 사람들이 미리 알고 찾아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천사들이 예수 태어나심을 계시해주었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감으로 천사들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말씀대로 어느 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스가랴 9장9절, 누가복음 2장 3-7절

환영해야 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700년 전부터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일에 대해서 100여 번이나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성경 최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중심은 “장차 예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모두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배려입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인카네이션(Incarnation)”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Incarnation)”(Incarnation)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즉 한 문으로는 “成肉身(성육신)”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선물 중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정적 하자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환영도 축하도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700여 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도 몰랐습니다. 또한 맞이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무성의 가운데 세상에 오셨습니

의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400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단지 0.1%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 0.1%의 사람들도 나라 밖에서 예수를 믿고 건국 후에 귀국한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유사종교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범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일까요? 그것은 편견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이 100여 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유대 고을 베들레헴에

들이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자 고소득층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새 인물이 나타나면 누구라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신들의 안전에 심각하게 위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기다림의 삶이 중요합니다.

사역자 청빙

예배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통하여 신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까지 확장한다는 Vision을 가지고 15년전 목가주 산호세 인근에 위치한 팔로알토에 세워진 남 침례교단 소속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한빛 성서 교회에서 영성있는 담임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 청빙 분야: 담임 목사
- 청빙 자격: 1. 복음적인 정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정규 풀타임의 목사 남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2.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 3. 영어와 한국어를 편히 구사 하실 수 있는 분
- 특 우: Full Time 사역자로 본 교회의 사례 기준에 따라 대우함 (가족 의료 보험, 주택 수당)
- 지원 서류: 한빛성서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은 목회관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및 Resume를 한빛성서교회 청빙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12년 1월 31일까지
- 접 수 처: 670 San Antonio Rd #2, Palo Alto, CA 94306 650-269-2670, 650-472-9094(F) Email: smartectech@gmail.com web: www.hanbit.us

한빛 성서 교회 청빙 위원회 위원장 임대순 집사

한빛성서교회
(Hanbit Bible Church)
687 Arastradero Road, Palo Alto, CA94304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영혼구원 및 치유와 회복을 꿈꾸는 라파선교회(Rapha Mission)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 오행침] 침술강의, 제 19기를 개최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품으신 분들과 침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본 적인 침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주 최: 라파선교회 (Rapha Mission)
강 사: 오덕상 장로(오덕상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일 정: 1월 12일 ~ 4월 12일 (총 12회)
시 간: 매주 목요일 7:00pm ~ 9:40pm
등록비: \$250 (교재용 바인더 및 침 제공)
장 소: 생수의강교회
2865 W. 7th St. L.A., CA 90005
(7가 웨스트 모어랜드와 후버 사이)

라파선교회홈페이지
www.larapha.org

•등록은 1월 12일 개강일에 직접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당일은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오행침 침술강의를 수료하신 분은 본 선교회의 국내외 의료선교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의 (213)703-0920

RAPHA 라파선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650 Wilshire Blv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48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8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교육칼럼

주일학교교육의 교육과정 세우기(6)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력에 의한 연간교육과정 세우기를 1월부터 시작하여 이제 한 해의 마지막 과정인 크리스마스와 송구영신에 대한 교육과정만 남겨 놓았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대강절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절기는 누가 무슨 표현을 해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논쟁이나 지금 지지고 있는 성탄절의 기원에 대한 논쟁거리 등을 불문하고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그 의미가 너무 진귀한 것이기에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많은 기대감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복음적인 의미가 희석되어버릴까 염려가 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을 통한 복음 전도는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에게도 어릴 적 크리스마스는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보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것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탄절 때문이었습니다. 가을부터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느라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리고 그 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추운 겨울밤 난로 앞에서 담소하며 웃고 웃던 일들이 지금껏 살아 있어 평생 동안 교회생활에서 떨 수 없는 것들처럼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성탄절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절기교육에서 이와 같은 질문은 아주 중요한 동계 공부에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하면 즐거운 캐롤송이 들려오면 여기저기 화려한 성탄추리장식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며 특히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떠올리고 크리스마스카드와 선물 그리고 장난감들을 기대하지요. 젊은이들은 남자가 데이트하는 절기로 인식되어져 버렸고 쇼핑하는 계절, 여행하는 계절, 파티와 먹고 마시는 일로 세상은 소란한데 적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 결코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이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 4000년 만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은 남자의 계보를 이어 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탄, 학년에 따른 역사 지리 정치 문화적 상황 자료 찾아 교육 죽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의미 확신시켜야

그런데 왜 하필 그 어려운 환경, 그러나 가장 낮고 천한 곳, 짐승과 함께 뉘새나고 더러운 말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는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해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의 탄생 이 성령으로 여자의 태를 빌려 출생하셨습니다. 즉 죄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1:18-20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 증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

바라 나,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추위와 가난과 아픔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케 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 나,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추위와 가난과 아픔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발견케 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이 같은 미트라스 축제 형태가 크리스마스 축제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를 합법화한 콘스탄티누스대제가 그리스도교의 강력한 미트라스교를 기독교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축제기간과 관습을 살려 크리스마스 축제로 승화시켰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크리스마스는 기독교회의 3대 축일의 하나가 되었으며 종교개혁이후 크리스마스는 신에게 감사하여 진정으로 기뻐하고 친척과 정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즐거이 돌아보는 때로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는 귀족과 서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당시 교회는 귀족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청교도 혁명 이후 근엄한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가 폭음, 폭식, 댄스, 도박, 소란 등 모든 악과 연결된 축제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1583년 스코틀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전면 금지하였다가 나중에 가정 내의 크리스마스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크리스마스는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신자이던 아니던 온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와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나오는 노엘(Noel)은 무슨 뜻이지요?
-나성에서 이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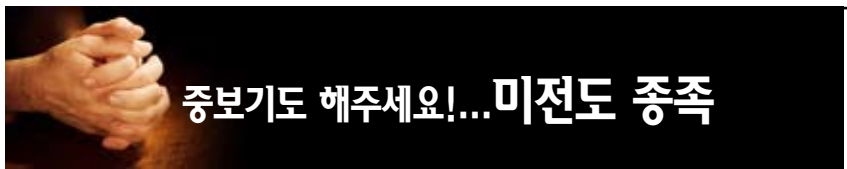
A: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영어로 Christ(그리스도)와 Mas(미사)를 합쳐서 Christmas가 되었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배"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엘(Noel)로,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Naeale), 독일에서는 바이나 흐텐(Weihnachen)이라고 합니다. Christmas를 줄여서 X-Mas라고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의 첫 글자 X에 Mas를 붙여 표현한 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으나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교회는 1월 1일, 1월 6일 3월 21일(춘분절) 등에 예수탄생을 축하했지만 교회적으로 아무런 행사도 거행하지 않았습니. 3세기경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크리스마스를 정하는 것은 이교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12월 25일로 고정되고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인 율리우스 1세 때부터 12월 25일로 고정

축일로 지켜지게 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337-352)때의 일이며 4세기 말에는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여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달이며 정복당한 일이 없는 태양의 탄생일로서 3-4세기의 로마에 보급되었던 미트라스교의 축제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불을 밝히고 상복수로 장식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평생 시에 금지되었던 내기노름과 주인과 종들이 자리를 바꾸어 술을 마시며 즐겼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한족(푸조우, 호키엔)



중국 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 집단으로 그 수가 12억에 이른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살지만 오늘 날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캄보디아, 태국 등을 포함한 이런 일련의 국가에 살고 있는 한족 공동체에겐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중국 한족은 만다린어(MANDARIN)·광둥어(CANTONESE)·廣東, 호키엔어(HOKKIEN)·福建 등 다양한 중국 방언들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각각 방언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한족은 몽고족의 침입 후 1273년에 태국으로의 이주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재난과 분장이 있었고 중국인들은 특히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 정착해 기반을 잡았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배타적인 만큼 확고히 도시에 자리 잡고 상업과 사업분야에 종사했다. 오늘날 그들은 인구비례 상으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삶의 모습

이주한 중국 화교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서구화된 국가들에서 주로 사업가로 활동한다. 그들의 사업 범위는 작은 상점에서부터 국제적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주거형태도 광범위하게 작은 아파트에서 값비싼 맨션에까지 이른다. 그들 대부분은 중국식 식생활을 지키고 있으며 많은 여전히 그들의 주식이며 식기도구로는 젓가락을 선호한다.

2차대전 중의 일본 점령기간에 민족주의 운동이 모국을 떠난 화교들 사이에서 전개됐고 이 운동의 구성원들이 중국을 열정적으로 지원했다. 공산당이 1949년에 중국을 점령했을 때 많은 중국 화교들은 혁명주의자들을 지지했다. 이는 그들이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한 지도력과 자신들의 본국인 중국본토의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주목

의 대상이 됐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공산당의 중국 본토 장악을 지지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한족들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도 공산혁명을 지지할까봐 염려했던 것이다.

많은 화교들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각자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교들은 중국 전통관습을 지키는데 특히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그러하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고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뿌리깊은 중화사상(중국 문화가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 여김)에 대한 우월성 때문이다.

한국의 대개 여러 철학들의 혼합 형태를 특징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전통 중국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거듭하면서 불교, 유교, 도교적인 부분들도 섞였다. 그들의 중심된 신앙은 "조화 유익(중용)"라는 개념이다.

신앙

화교들은 대개 여러 철학들의 혼합 형태를 특징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전통 중국종교를 고수하고 있다. 또한 시간을 거듭하면서 불교, 유교, 도교적인 부분들도 섞였다. 그들의 중심된 신앙은 "조화 유익(중용)"라는 개념이다. 또한 한족은 미신에 집착하는데 주로 어떤 행동을 조화를 증진시키고 행운을 가져올지 결정하고자 할 때 별자리 점들을 보곤 한다. 그들은 한시에 거주하는 영들의 신전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조상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날때가 대접을 잘 받으면 자신들에게 행운을 가

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귀신의 존재도 믿는데, 이는 자신들의 죽음에 한(恨) 맺힌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한 맺힌 영혼들은 대개 악하고 지긋다. 반면 선한 영혼들은 생전에 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혼령으로 인식하면서 이런 선한 혼령들은 자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영적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필요 하는 것들

한족들의 영적 결핍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들이 정착한 나라들 대부분이 복음에 개방적이며, 중국 방언으로된 복음화를 위한 자료들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네팔, 탄자니아, 태국 등에 거주하는 화교들 중 거의 극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들은 여전히 미신과 잘못된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 랩하는 신부 유튜브 인기 폭발

[미션라이프] 영국 성공회의 한 신부가 성경을 랩으로 부르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15일 보도했다.



영국 동부 데번 지역의 영업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개빈 타이트(40) 신부가 그 주인공. 그가 제작한 '비트박스 바이블'은 동영상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3주 동안 1만5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루 수천 건이 넘는 영상이 게재되는 가운데 이뤄낸 놀라운 성적이다.

타이트 신부는 누가복음 2장 1-21절의 내용을 랩 가사로 불렀다. 3분 30초짜리 영상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담겨있다. 일부 구절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각색했다. 타이트 신부는 비트박스를 하는 천사와 목자, 랩을 하는 신부 등 1인 3역을 모두 소화했다. 노래는 최신식 '랩송'에 걸쭉도 손색이 없었다. 타이트 신부가 성직자로 임명되기 전 전문 음악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7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 비트박스사이트의 편집자와 영국 비트박스 챔피언십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네티즌들은 비트박스와 랩, 그리고 성경의 요묘한 조합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대부분은 "성경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극찬했다.

시리아 반정부 시위 격화, 기독교인 '불똥'

시리아의 시위 소용돌이 속에 현지 기독교인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오픈도어)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향한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속에 떨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정든 고국을 떠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 표적이 되고 있다. 현 대통령의 부친인 하페즈 알 아사드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혹독한 독재체제 속에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런대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위 정국은 종교적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했다.

오픈도어는 홈즈의 경우 정부군이 철수한 이후 수니 무슬림들이 거리를 장악했으며 일부 과격주의자들은 교회를 공격, 교회 물건을 훔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성들에 대한 납치와 강간, 살해 사건도 발생해 기독교인 여성들의 경우 자내가 어려울 상황이다.

오픈도어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비교적 안정감을 누리왔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고국을 등지려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시리아에는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 가운데 10만 명은 이라크 전쟁으로 피신한 이라크 기독교인 난민이다.

불황 한파에도 자선냄비 '필필'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구세군 자선냄비는 '필필' 끊고 있다. 한국 구세군은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모금활동은 지난 14일 이영훈 목사가 서울 명동에서 자선냄비 봉사에 참여한 뒤 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에게 자선냄비를 교회에 초빙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이뤄졌다. 박 사령관은 이날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해 이 목사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세군은 앞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희귀난치병 다섯 천사를 위한 특별 자선냄비-사랑을 채워주세요'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 자선냄비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다섯명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인 자선냄비 성금은 '유리공주 원경이'로 세상에 알려진 신원경(면역성결핍증)을 비롯해 김태영(정각장

에 뇌 뇌수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명으로 치료 중), 김진영(귀가 점점 안 들림), 차예은(키가 멈춘 병), 김주안(잔생불량성빈혈)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된다.

한편 구세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모금액은 20여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모금 목표액인 45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수 탄생 기쁨, 나눔으로 두 배!"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 기독교 구호단체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들 단체는 지구촌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2011년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펼치는 등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새롬로벌호프(대표 조용중) 홍보대사인 배우 윤희석과 미스코리아 한경진씨는 해외 빈곤아동들에게 학용품 세트를 보내는 '메리Give(Give)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13~15일 송실대에서 캠페인을 여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윤씨는 "나눔으로써 행복해지고, 그러면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해외 빈곤아동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이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랐다. 그의 팬들도 거들었다. 팬카페 '수호천사 윤희석(cafe.daum.net/Yoonnala)'에서는 카페 회원들과 함께 릴레이 기부를 통해 모은 후원금을 '메리Give 크리스마스' 캠페인에 보내기로 했다.

희망적인 지구촌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글로벌호프는 개발도상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호프 라인(Hope Line) 2000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팀엔팀(이사장 이남식)도 '크리스마스 선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선물은 '착한 물'을 가리킨다. 즉 60년 만에 닦친 최악의 가뭄과 오렌 식수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에 착한 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팀엔팀은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케냐 타타벨타 지역의 학교 3곳에 우물을 파준다.

이와 함께 팀엔팀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카드를 판매 중이다. 한 디자이너의 재능 기부로 제작된 이 카드에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후원카드가 함께 들어 있다.

카드를 구매하고 희망후원카드에 메시지를 적어 팀엔팀으로 보내주면, 희망후원카드를 모아 케냐지역 학교 3곳의 아이들에게 우물을 통한 착한 물과 함께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도 전달한다. 이 캠페인은 팀엔팀 홈페이지(teamandteam.org)와 네이버(해피빈) 다음(희망해) 사이월드(사이좋은 세상) 등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베들레헴에 한국교회 대형 성탄카드

[미션라이프]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 한국교회의 성탄 카드가 발송됐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활동 중인 강태운 선교사는 "베들레헴에 성탄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며 "올 성탄에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대형 성탄 카드 현수막이 베들레헴을 장식했다"고 20일 전했다.



카드에는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인사하는 모습과 성탄-새해 인사가 담겨있다. 인사는 "즐거운 성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한글로, "전 세계를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어로 씌어져 있다. 카드는 서울 광명교회(조현삼 목사)가 지원했다.

대형 성탄 카드는 5m×8m 크기의 대형 플랜카드로 제작돼 성탄 광장 근처 빌딩에 부착됐다. 강 선교사에 따르면 성탄 카드는 지나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한국교회의 마음이 현지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현재 베들레헴의 성탄 분위기는 거리 전역에서 물씬 풍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팔레스타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기쁜 성탄을 맞고 있다는 전언이다.

강 선교사는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앞 성탄 광장에는 대형 무대가 설치돼 매일 저녁 음악회가 열리고 있다"며 "지난 15일에는 대형 성탄 트리가 점등됐고 오는 24일 저녁에는 전 세계에서 참가한 합창단과 지역 합창팀이 함께 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음악회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속한 이슬람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수도 라말라와는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인 이곳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달리 범기독교(가톨릭, 정교회 포함) 인구가 60%에 달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김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월-토) Tel: (703) 379-7979, Fax: (703) 379-8191 6534 N. Sunset Ave., Las Vegas, NV 89148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Tel: (704) 847-6291, Fax: (704) 847-1626 3819 McKee Rd., Chandler,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7:00 Tel: (303) 439-6865, Fax: (303) 439-6843 7786 Ripley St., Arden, CO 80509	풍고매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목회자 기도회: 오후 8:00 Tel: (910) 299-6291, Fax: (910) 299-7777 3290 Albemarle Rd., Lenoir, NC 28645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전 11:30(한국) 주일학교 예배: 오후 8:00 Tel: (704) 645-9379, Fax: (704) 645-3046 1600 Woodstone Rd., Levittown, PA 15027	맨얼교회 담임목사: 김용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전 11:45 금요일 예배: 오후 7:45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410) 487-9776, Fax: (410) 487-8993 3706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택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15 주일학교: 오후 11:15 Tel: (617) 542-4579, Fax: (617) 542-448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2:00 Tel: (410) 327-8443, Fax: (410) 327-8448 6902 Parkside Dr., P.O. Box 5508 Lutherville, MD 21113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수요 기도회: 오전 11: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30 Tel: (301) 465-0791, Fax: (301) 465-1748 5607 Parkside Dr., P.O. Box 5508 Lutherville, MD 21113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목회자 기도회: 오후 8:00 Tel: (206) 527-0281, Fax: (206) 527-1748 4640 E. 199th St., Seattle, WA 98148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목회자 기도회: 오후 8:00 Tel: (301) 570-9849 / 사: (301) 910-4219-2776 650 Kirby Rd., Gaithersburg, MD 20878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307) 344-6444, Fax: (307) 344-3152 6220 Woodstone Rd., Arden, NC 28645	엘파소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대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한국)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30 Tel: (214) 915-5778-5486, 사: (214) 915-5771-4363 3410 Atlas Ave., El Paso, TX 7996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717) 542-0298, Fax: (717) 542-6487 759 Millers Rd., Hanover, PA 17344	
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금요일 예배: 오후 8:00 Tel: (252) 624-6765, (252) 621-6837 4514 E. 9th St., Kinston, NC 78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현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703) 441-4427, Fax: (703) 441-4448 4213 Marthas St., Alexandria, VA 223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회자 기도회: 오후 8:00 Tel: (901) 842-7238, Fax: (901) 842-7238 3024 Corporate Court East, City MD 22642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410) 212-0518, Fax: (410) 212-0518 3294 Corporate Court East, City MD 226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253) 835-1089, Fax: (253) 835-1089 7481 E. Verbe St., Tacoma, WA 98408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한국)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한국) Tel: (252) 835-6207, Fax: (252) 835-6207 8702 E. 8th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252) 835-6207, Fax: (252) 835-6207 8424 E. 12th Ave., Tacoma, WA 98444	
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한국)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예배: 오전 12:1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한국)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407) 726-0197, Fax: (407) 726-0197 1150 E. DeBourk Rd., Chandler, AZ 85286	허브포드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란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45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901) 842-4738, Fax: (901) 842-4666 300 Chapel Road, Memphis, TN 38103	<h3 style="margin: 0;">하와이지역</h3>		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808) 726-9071, Fax: (808) 726-9071 1635-A Peleli Ave., Honolulu, HI 96818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808) 726-1004, Fax: (808) 726-6582 1962 8th Ave., Honolulu, HI 96818	허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808) 726-2306/967-1776/642-5522 1351 E. Kawili St., Hilo, HI 9674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7: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새가족 기도회: 오후 8:00 Tel: (808) 947-4252, Fax: (808) 947-4587 www.hawaiichurch.org 2922 Meiaua St., Honolulu, HI 96822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8.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130억 광년과 6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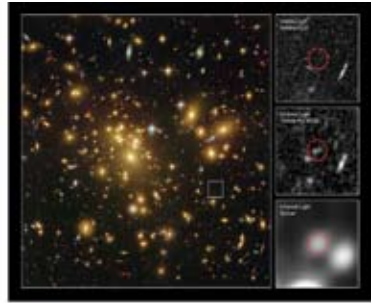
지난 2008년 2월 13일자 Science Daily에는 “가장 먼 곳의 은하 기록에 도전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될 만한 은하(A1689-zD1)를 새로 발견했다고 보고하였다.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이 지구에 도달하였으므로 130억 년 전의 은하의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 은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설명은 실제 거리를 측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색편이’라는 빛의 성질에 근거한 것이다). 2007년에는 적색편이가 이보다 더 큰 즉, 더 먼 곳에 있는 은하를 발견하였다고 BBC News(2007년 7월 11일)가 학계 저널인 The Astrophysical Journal(663:10-28, 2007)의 보고에 근거해서 일반에 보도를 하였다.

빅뱅 가설을 믿는(믿음이지 확인된 것이 아님) 과학자들은 앞에 소개한 은하들이 빅뱅 후 각각 7억년과 5

빅뱅 원초물질/에너지 존재 방법·폭발에너지가 별이 된 경우 몰라 지구중력장 가정 험프리 우주모델 “파이오니어 효과” 말끔히 설명

억이지 않다.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이 왔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가 적어도 수백억 년 되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설명은 마치 ‘거리는 자동차로 40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오는데 40시간 걸렸음에 틀림없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신은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만에 올 수도 있다. 그 빛이 정말로 수백억 년 동안 달려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직 빛에 대해 과학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예가 지평선 문제(horizon problem)다. 현재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빛의 속도로는 빅



가장 먼 은하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를 보려면 은하와 은하 사이를 계속해서 지나야 한다. A1689-zD1은 오른쪽 3번의 확대 그림에서 볼 수 있다.

뱅론자들이 빅뱅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우주 공간의 균일한 온도(3도 K우주 배경복사)를 설명하지 못한다. 은하들의 온도는 모두 다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주 공간의 온도는 어디에서나 똑같을 수 있을까?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열 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빛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빛 속도를 가지고는 빅뱅에서 주장하는 우주의 나이인 137억년 안에 충분한 열 교환이 이루어져 우주 공간의 온도를 균일하게 하기에는 우주 공간은 너무 크다. 빅뱅론자들이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상상 위에 상상을 덧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창조론에서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빛이 즉시 지구에 도착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을 수 있다. 전능자를 가정하면 이 설명 자체는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뿐 아니라 창조론자인 험프리(Humphreys) 박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천문학 모델을 만들어 최근 발표하였는데 그 우주 모델은 불과 6,000년 안에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잘 설명하였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 모델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델은 세상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인 “파이오니어 효과”를 말끔하게 설명하고 있다.

파이오니어 효과(pioneer effect)란 지구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태양계 밖으로 비행할 때 이상하게도 계속 속도가 감속되는 현상이다. NASA의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중심의 중력장을 가정하고 있는 험프리 박사의 새 우주 모델은 이 우주선의 감속 이유를 잘 설명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각 행성을 지나는 시각을 훨씬 더 정확하게 맞추기도 하였다.

지난 칼럼에서 우주의 모습이 마치 양과 껌질과 같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배열 되어있다는 관찰 결과를 이미 소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그런 모양이 되도록 창조의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므로 수백만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로부터 온 빛들도 아담이 볼 수 있도록 창조 과정에서 중력장을 조절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이 불과 수천년 안에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창조자를 무시하는 설명이고

코앞에 지나가고 있는 빛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4일째 지구를 위해 태양과 달과 무시무시하게 많은 별들의 집단인 은하들이 갑자기 존재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 “또 별들을 만드시라”라는 말씀만으로 설명을 끝내버렸다. 그 대신 창조 4일째의 기록의 거의 대부분의 설명은 그 빛들이 지구에 비추게 되었을 때 그 빛을 보고 날이 개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사람들을 온통 마음에 두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기를 쓰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주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인 지구에, 창조자이면서도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 없었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린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2011 세계10대 종교뉴스

(3면에서 계속)

3위 가톨릭 사제, 로버트 핀의 구속: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제의 형사법 처벌로는 처음.

4위 가톨릭교회의 미사 집전리례 영문 번역 소개: 1973년 이후 첫 번째로 도입된 변화의 물결

5위 미국장로교회(PCUSA)의 노회에 따른 동성애자 안수 허용.

6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복자 시성식: 5월에 시행된 복자 시성식은 성인 시성식 직전 단계로, 백 만 명 이상의 가톨릭 교인들이 로마에 모였다.

7위 해럴드 캠핑의 “시한부 종말론” 파문: 5월에 있을 종말이 10월에도 없었다.

8위 미시건 대형교회 담임 랍 벨 목사의 지옥에 대한 완화된 해석 논란, 전통적인 지옥관에 대한 도전으로, 남침례교단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9위 미시시피 주, 낙태 허용 시설(The Personhood Initiative)의 제한적 시술만 허용

10위 영어번역 성경들의 논란: 흠정역 400주년 맞아 새번역, NIV 성경의 성(gender)적 어휘 사용 등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RNS는 2011년 한 해 동안 종교계에서 논란이 됐던 화제의 인물로, 시한부 종말론자 해럴드 캠핑을 선두로 선정했고, 유대교와의 관계 개선에 진전을 보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그 뒤를, 그리고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기독교적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는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올해의 종교계 뉴스 메이커로 선정했다.

결론으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은 일본 열도를 강타한 8.9 지진과 쓰나미보다 더욱 부각시키는 AP통신이나 RNS의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종교인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과응보의 복수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신앙인의 양심 때문이다. 즉 정의, 평화,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기도 등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오사마 빈라덴 사망



스티브 잡스 사망



해럴드 캠핑의 “시한부 종말론” 파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호세마리아 에스끄리바의 시성식



일본 쓰나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계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 4부예배: 오후 7:3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재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경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 기도회: 오후 7:30	광주신입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기도회: 오후 7: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권고회 기도회: 오후 8:00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장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돈돈한교회 담임목사: 정창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안수예배: 오후 8:00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권병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인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경익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인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30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목회 기도회: 오후 8:00 권고회 기도회: 오후 8:30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권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회 기도회: 오후 7:30	창도교회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청주주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회 기도회: 목회 8:30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종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름다운 동행... 이민목회 모델 제시

퀸즈장로교회는 새로운 담임 박규성 목사를 맞아 18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오후 4시에는 매년 성탄을 맞아 드리는 성탄 축하예배도 드렸다. 퀸즈장로교회는 38년의 저력을 보이며 새 담임 박규성 목사와 개척설립자 장영춘 목사를 모시고 2011년 연말과 2012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본당 1층과 2층을 꽉 채운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 퀸즈장로교회 위임예배는 뉴욕의 각 언론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인터넷 언론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의 전말을 모두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지는 지난 제1364호 10면의 탐 기사를 사진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왼쪽부터 박규성 목사, 박미선 사모, 장미은 사모, 장영춘 목사

장영춘 목사 “교회 위해 기도하며 세계 선교와 바른 신학교육에 헌신” 박규성 목사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 계승 하겠다”



말씀을 전하는 장영춘 목사

설립 38년된 퀸즈장로교회는 2대 담임을 맞았다. 장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내년 2월말 본 교회 설립기념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규성 목사는 “전도사시절부터 교회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장 목사님내외분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민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38년간 장 목사님을 도왔던 그 열심을 제게도 허락해주셔서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사했다.



답사를 하는 박규성 목사

예배는 KAPC 뉴욕노회 위임국장 이원호 목사 사회로 기도 김해천 목사(전노회장), 성경봉독 황경일 목사(노회서기), 설교 장영춘 목사, 특송 글로리아 아중창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목사직의 영광”(엡4:7-12)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라며 “퀸즈장로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목사직은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의 임무와 사



권면하는 김남수 목사(부총회장)



축사하는 강기봉 목사(총회장)

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훈련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박규성 목사에게 행들을 넘겼다”며 “이제 내 인생은 박 목사에게 달려있으니 옆 자리에 동승해서 기도하며 지도해서 차가 잘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자신은 앞으로 “선교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지혜와 담력이 있는 박 목사에게 많은 기도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9면으로 계속)

바른선교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바른훈련

LA지역

21세기 선교세미나

실버선교회(Silver Missions Fellowship)는 조기 또는 정기 은퇴후 살날은 많으나 할 일이 없어 현실은 답답하고 미래는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에게 선교를 통하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나 선교지에 가서 여생을 멋지고 보람있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복음주의적 교회중심적, 초교파적 선교기관입니다. 그 산하 실버 선교훈련원(Silver Missions Training Center)에서는 59회 걸쳐 11년 동안 16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그중 120여가정은 이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LA지역 3곳에서 실버선교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I. 목적

1. 선교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문화적 기초 확립
2. 타 종교에 대한 접근방법 습득
3. 실버 선교사의 특징과 장점을 선교에 활용 방안 모색
4. 생생한 현장 학습을 통하여 실버선교사로서의 자질 겸비
5. 교회 안팎에서 선교사 활동 살며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

II. 대상

1. 선교마인드가 있어 체계적인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
2. 교회내 선교관련부서에서 효과적으로 활동 하기 원하시는 분
3.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선교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
4. 은퇴후 여생을 선교사역에 의미있게 헌신 봉사를 하시려는 분
5.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위탁하신분

III. 세미나 커리큘럼

- 평일 1교시 오후 7:30 - 8:20 / 2교시 8:30-9:20
주일 1교시 오후 1:00 - 2:10 / 2교시 2:30-3:20
- 실버선교사의 인격과 영성
 - Well Being(행복한 삶)
 - Well Aging(잘 늙기)
 - Well Dying(거룩한 죽음 준비)
 - 선교의 큰 그림
 - 선교란?(선교의 이해)
 - 선교의 성서적 기초
 - 실버선교의 소명과 준비
 - 선교사의 갈등 처리
 - 실버선교사의 리더쉽
 - 실버선교사의 문화충격 해소 방안
 - 선교사의 기도 생활
 - 헬퍼쉽(HelperShip)

IV. 등록안내

- 일시 : 2012년 1월 15일(주일) - 20일(금)
장소 : 나침판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810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826-6245
- 일시 : 2012년 1월 22일(주일) - 27일(금)
장소 : 새한장로교회(담임 정세훈 목사)
2531 W. Pico Blvd., LA CA 90019
TEL. 213-386-0685
- 일시 : 2012년 1월 29일(주일) - 2월 2일(목)
장소 : 나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
213 S. Hobart, LA CA 90004
TEL. 213-388-7101

실버선교회 이사장 김형균 목사

훈련원장 정운길 선교사

연락: 실버선교회정운길목사 847)612-8520

주후 2011년 12월 11일,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



장영춘 목사(왼쪽)가 박규성 목사에게 열쇠와 선물을 전하고 있다



선서하는 박규성 위임목사. 옆은 박미선 사모



장영춘 목사가 박규성 목사부부에게 선물을 수여하고 있다. 선물을 박미선 사모의 승용차



박규성 목사가 위임을 받는 사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원호 위임국장



축하 찬양하는 글로리아찬양단



전 교인이 일어서서 권면을 받고 있다



박규성 목사부부에게 꽃다발을 증정됐다.



장영춘 목사부부에게 꽃다발이 증정됐다.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환송하는 장영춘 목사부부.



◀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했다.

▶예배 시 축복 찬양을 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을 환송하는 박규성 목사부부

(8면에서 계속)

위임예식은 서약/위임목사서약, 교인서약,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증정, 권면 위임목사에게(부노회장 김남수 목사), 교인에게(부노회장 조문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KAPC 부총회장 김남수 목사는 "말씀연구, 기도, 인내, 겸손은 전제하고, 첫째 장영춘 목사를 잘 모시라"며 "장 목사가 말씀하지 않은 무언의 말씀도 잘 헤아리고 또 교인사랑을 아내같이 하며,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하

고,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와 감사는 축하 강기봉 총회장, 김두해 전노회장, 축가 찬양대, 열쇠증정,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답사 박규성 목사, 인사 및 광고 박선도 장로, 축도 이규본 전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회는 박규성 목사 사모에게 승용차를 선물했으며 각 기관별로 박 목사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박규성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퀸즈장로교회 전도

사로 사역하다 뉴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목사로 섬겼다. 이후 브라질 서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7년을 사역했으며 브라질노회 노회장과 브라질한인목회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9년 7월에는 장영춘 목사 후임예정자로 퀸즈장로교회에 부임해 2년간 수업을 받고 올해 7월 공동의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유원정 기자)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2012년

할렐루야! 기쁜 성탄과 다가오는 새해에 섬기시는 귀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교회협의회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신년감사 예배와 하례만찬을 나누고자 아래와 같이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복된 자리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 일 시 : 주후 2012년 1월 9일(월) 오후 7시
- 장 소 : 대동연회장 (718)939-2555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 참가비 : 50불(1인당)
- 연락처 : 718-358-0074(교협 사무실)

* 행사 당일 접수는 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양승호 목사 부회장: 김종훈 목사 부회장: 황규복 장로 이사장: 이대연 장로 준비위원장: 최예식 목사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청소년센터 2012년 봄 SAT 강좌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최예식 목사)가 2012년 봄 SAT 강좌를...

▲문의: (718)321-1010

신년대부흥성회

뉴욕새천년교회(담임 장규준 목사) 신년대부흥성회가 2012년 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열린다...

▲문의: (718)631-9191

뉴욕나눔의집 사랑의 일일차집 성향

뉴욕나눔의집(대표 안승백 목사)이 지난 17일 일일차집을 열고 겨울나기 준비에 나섰다.



노숙자 후원을 위한 일일차집이 열린 뉴욕나눔의집에서

안승백 목사는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적으나마 사랑의 일일차집을 열었다"며 "이런 후원을 통해 노숙인 사위시설을 마련하고 겨울 의류, 점퍼, 장갑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숙자 후원을 위한 일일차집이 열린 뉴욕나눔의집에서 안승백 목사는 "한인 노숙인들을 위해 적으나마 사랑의 일일차집을 열었다"며 "이런 후원을 통해 노숙인 사위시설을 마련하고 겨울 의류, 점퍼, 장갑 등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NY Saxophone Orchestra, 단장 유진웅) 창단 연주회가 지난 8일 오후 8시 플라싱 타운홀에서 열렸다.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연주회 모습

유진웅 단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창단 공연에서는 크리스마스 메들리, 성가곡 등이 연주됐고 2부에서는 팝클래식, 국악 민요연주와 재즈 등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게스트로 소프라노 에리카문, 엔젤라 조셉, 이송희 씨의 장구 연주와 제시우 앙살블립의 대니보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편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마지막에는 재즈 순서가 있었으며 마지막엔 출연자 부인들이 나와서 "사랑으로" 등 3곡의 앵콜송을 불렀다.

(기사제공: 뉴욕색소폰오케스트라)

성지순례 등 2012년 사업계획 발표

뉴욕한인목사회 40회기 1차 임실행위원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 40회기 1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19일 뉴욕복된교회(담임 최예식 목사)에서 열려 성지순례 등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인도로 기도 김수태 목사(역사자료 분과), 성경봉독 신수지 목사(사모 분과), 말씀 양승호 목사(교협회장), 축시 조이호 목사(자문위원), 축도 이병홍 목사(인권위)의 순서로 진행됐다.

심사" (담전:4:15)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회무는 김승희 목사 사회로 개회기도 김기호 목사(성지순례분과), 회원점명 김홍석 목사(서기), 사업계획보고 김희복 목사(총무), 식사 기도 이민선 목사(친교분과)의 순서로 진행됐다.

"화합하며 하나되는 목사회"(요 17:23) 포어를 내세운 40회기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뉴욕목사회 임실행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CBN 후원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믿음 갖고 기도로 견디며 승리하자!

KCBN 후원감사예배...후원자들과 만남의 시간

미주기독교방송 KCBN(사장대행 문석진 목사, 이사장 윤세웅 목사) 후원감사예배가 지난 19일 저녁 플라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을 지내왔지만 하나님의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사회로 경배와 찬양/뉴욕찬양마을, 기도/김종훈 목사, 성경봉독/백태열 목사, 특송/문진영, 설교/양승호 목사, 헌금기도/정성만 목사, 축도/윤세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오영아 방송실장의 사회로 축사 최예식 목사, 방송가족소개와 인사/인터뷰, 직권소개, 감사패 수여, 이사장 인사, 사장대행 인사 등의 순서가 있었다.

양승호 목사(뉴욕교협회장)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출 13:21-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열기왕성한 40세 모세가 아닌 고난을 통하고 80세 노인 모세를 사용하셨다"며 "KCBN이 22년을 지내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KCBN은 FM104.3 WAXQ SCA 라디오수신기, 인터넷, 스마트폰(www.kcbn.us), WMBC TV채널 63.7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AYC 그대로 사용...타민족 사역확대

16일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통합추진 보고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최예식 목사, 이사장 이수일 장로)가 지난 16일 이사회를 갖고 뉴욕한인청소년센터(KYC, 대표 양희철 목사)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 및 업무보고를 했다.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통합에 대한 간의 보고가 있었다.

AYC는 KYC와 통합을 하면서 영이름을 KYC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이날 모임에서는 영이름은 그대로 AYC를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

또 후원문제에 대해 최 대표는 "후원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느 곳이 교협산하 인지 헷갈린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이를 분명히 해야 후원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글사용 시에는 뉴욕청소년센터라고 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장경혜 목사(회계)는 "매달 이사회 모임에 수입지출 보고를 하겠다"며 "이는 사역을 활발히 하고 사무총장의 짐을 더는 것이며 회칙에 명시된 기본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KYC와의 통합은 서두르지 않고 현재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했으며 학원사역자들을 재정비하고 영이름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KCTV후원 음악회 연주를 마치고 양근식 지휘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웃에 복음과 아름다운 사랑 방송

KCTV 후원 자선음악회, 천지창조 베토벤 연교향곡 연주

뉴욕기독교(KCTV)사장 박용기(장로)방송 후원 자선음악회가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주최로 지난 18일 저녁 동 교회에서 열렸다.

성전 시운성가대 지휘, 테너 김민식(뉴욕신광교회 목사), 베이스 박요셉(쉐퍼드콰이어&오페라 단장) 등이 공연했다.

천지창조는 1. 서곡부터 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등 14. 하늘이 주 영광을 선포하고 까지 연주했으며 '핀란드'에 이어 베토벤 9번 교향곡(4악장)이 연주됐다.

문석호 목사는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며 "KC TV가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24시간 복음영상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미주지역을 향해 확장시켜나가기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후원의 손길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과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고 위로할 것"이라고 인사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and NJ,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미국 부흥운동에 작은 불씨 키울 것”

OC교협 송년모임, 2012년 사역계획 발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17일 오후 5시30분 OC제일장로교회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2012년도 이사회와 회장단과 임원

을 구성하고 2012년도 새 사역계획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와 후원이사회로 구분해 ▲실행이사회는 △이

사장 윤성원 △총무이사 박용덕 △이사 정영수 박학선 양금호 이종은 양문국 한기홍 신원규(이상 목사) 등 증경회장들로 구성됐고 ▲후원이사회는 △이사장 정호영 △이사 이석봉 박풍산 전주홍 김영수(이상 장로)로 구성됐다.

아울러 새해 2012년 OC기독교교회 협 사역계획은 △1월 7일 OC단체장 초청 조찬예배 △1월 9일 이취임예배 및 신년하례회(장소:OC제일장로교회) △1월 14일 미주한인의 날 기념 감사예배(장소:남가주사랑교회) △3월 SBM세미나 감사 황의영 목사(장소:세리토스 소망교회) △4

월 부활절연합새벽예배 △5월 사모 Blessing Night △6월 OC원로목사회 초청위로여행 △7월 청소년교회를 위한 찬양집회 △8월 15일 광복절 기념예배(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와 공동 주관, △8월 OC평통, OC교협 연합조찬기도회(장소:나침반교회) △9월 아의일월회 △9월 차세대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한 Solution세미나 감사 김만형 목사(서울진구교회 담임) △10월 영대각성집회 △11월 이사회 및 총회 △12월 교회연합 메시아연주회 △12월 사랑의쌀 나누기 등을 발표했다.

특별한 것은 ▲지역사회 및 교계와의 연합기도회 및 교류를 통해 미국의 부흥운동에 작은 불씨를 키워갈 것과 ▲다음세대들의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해 차세대연구소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선교를 펼쳐갈 계획이다.

(정리:이성자기자)



“예수님탄생은 하나님의 지상최대 선물”

필라교협 2011년 성탄축하 연합찬양제 성료

대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대우 목사)는 지난 11일 오후 6시 밴델교회(담임 안재도 목사)에서 2011년도 성탄축하 연합찬양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윤상철 목사(음악분과위원장) 사회로 200여명의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에 이어 1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용대 목사(좋은소식 대표), 안디옥교회 할렐루야찬양대, 벅스카운티교회 혼성중창팀, 순복음중앙교회 피아노 및 찬양, 영성장로교회 크로마하프 찬양단, 새한장로교회 찬양대, 낙원교회 중창팀, 비브리칼신대 중창팀, 세전교회 바이올린, 몽고메리교회 중창팀, 목사사모 일동 찬양, 새한교회 헌금특송, 밴델교회 찬양대 등이 참가했다.

예배는 박상욱 장로(제2부회장) 지도에 이어 이대우 목사가 요한복음 3장16절을 인용,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지구상 최대 선물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서장석 장로(회계) 지도에 이어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이 있었고, 마지막 순서로 “할렐루야”를 합창한 후 안재도 목사(경증회장) 축도했다. 이어서 박동배 목사(부회장) 기도 후

밴델교회서 제공한 다과로 친교를 나누었다.

한편 총무 김선훈 목사는 △27일 은퇴목사 및 사모위로 잔치가 영생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신년하례 기도회(설교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가 1월 8일 안디옥교회(담임 오성기 목사)에서 있으며 이날 모금된 헌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샘선교회에 보내진다고 광고했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필라교협 이단대책위 조직

대 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대우 목사)에서는 지난 14일 이단 퇴치에 앞장설 조직을 교단별로 새롭게 구성해 발표했다. 필라교협은 이단 침투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역과도 연계해 이단 퇴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새로 임명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창만(온누리순복음교회) △총무: 차명훈(벤살렘칼리교회) △위원: 김선훈(세전교회), 김풍운(벅스카운티장로교회), 박도성(필라 구세군), 안문근(주님의교회, 침례교), 이대우(필라한빛성결교회), 전영현(서광장로교회)(이상 목사).

(기사제공: 필라교협)

남해안 순회 의료선교사로 귀향

선교사 이종성 목사 환송예배 및 출판기념회

선교사 이종성 목사(사진) 환송예배 및 출판기념회가 지난 17일 뉴욕실로암장로교회(담임 김종덕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에서 30여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목사로 사역해 온 이종성 목사는 한의사, 시인, 화가, 사진작가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목사는 “의사가 되어 귀국하니 금의환향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의촌 낙도도 가는 의료선교사”라며 “의사 누가를 데리고 소아시아와 지중해의 섬들을 선교한 바울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목사는 해양의료선교회 일원으로 2012년 1월 경남 진주복음병원으

로 의료선교를 떠난다. 해양의료선교회는 남해안 500여 개의 낙후지역을 순회 진료하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관이다.

이날 예배는 김종덕 목사 사회로 기도 김종훈 목사, 특송 박영수, 설교 김형훈 목사(“위대한 선교사 바울”, 행19:21-22), 축사 윤세웅 목사, 답사 이종성 목사, 색소폰연주 최지형, 축도 유재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는 이목사의 시집 “당신의 음성” 출판기념회로 진행됐다. 이목사의 부인 허금행 사모의 사회로 개회기도 박기태 목사, 시낭송 김금수, 시평 이계선 목사, 시낭송 소피아재, 시인말씀 이종성 목사, 찬양연주 최지형, 축사 조삼경 박사, 이호재 박사, 김장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폐회기도는 정인화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제 6회 싱글 패밀리 밴킷 성료

FMC(가정사역상담소)와 FBM(가정세우는사람들)은 한해를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가운데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애써온 한부모들(Single Parents)과 자녀들을 위해 12월 11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왕성식당에서 밴킷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예배로 시작돼 식사와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게임을 즐기고 푸짐한 경품도 안겨줬다.

본 행사는 한 부모 가족들은 휴일(Holidays)이 되면 상대적 빈곤감 가운데 자칫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기 쉽고 경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두세 가지의 일을 하는 싱글 부모들은 더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싱글 패밀리 밴킷을 통해 혼자 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케네션을 만들고 확대가적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FMC와 FBM이 주축이 됐으며 남가주사랑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온누리교회, 로렐교회, LA비전교회, 미주비전교회, 은혜교회 등 여러 교회 한부모들과 자녀 90여명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에는 한부모 사역에 헌신적인 참여한 지도자 3명에게 표창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FBM 연락처:(714)514-6690

(이성자 기자)

KAFHI정승호 목사와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동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 소리엘 지명현

동아프리카 어린이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는 소리엘 지명현과 함께 동아프리카 기아 난민촌 어린이들을 지원하기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12월 23일(금)부터 25일까지 남가주 지역에서 개최한다.

장소 및 일정은 △23일(금) 오후 8시 다승교회(이근환 목사) △24일(토) 오후 7시30분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25일(주) 오후 5시 오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콘서트 현장에서 감동되는대로 헌금하면 된다.

미주기아대책(KAFHI)사무국장 정승호 목사는 “지난 11월 메릴랜드에서 동아프리카 구호를 위해 행사를 가져 2만 달러가 지원됐다”고 밝히며 “성탄을 맞아 자녀와 이웃에게 선물을 하는데 동아프리카에서 굶어 가는 아이들에게 성탄선물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콘서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현재 아프리카 기근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UN이나 여러 구호기관에서 G20 주요국에게 긴급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별 호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 기근은 만성적이다”라고 밝혔다.

강준민 목사 ‘올해의 동문상’ 선정

APU 한인동문회 주최 2011 아주사의 밤

2011 아주사의 밤이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APU 한인동문회 회장 류창식 목사) 주최로 APU

동부캠퍼스 내 UTCC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말 송년회로 모인 이날 행사는 8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APU에서 수학한 동문들이 모여 교제하며 각각의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동문 가족과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색소폰 연주, 찬양 등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교 재학생인 소병현 전도사와 본교 동문 김숙영 사모, 그리고 APU Korean Chapter Men's Quartet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날 참여한 동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스페셜포토타임을 가져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특별히 APU 한인동문회를 위해 힘써온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에게 올해의 동문상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날 아주사의 밤은 박성민 부총장이 APU한인동문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한 축복기도를 가진 후 마쳤다.

APU한인동문회는 아주사퍼시픽대학교의 총동문회(회장 크레이 월레스 목사)에 소속된 한인동문회에서 공식 명칭은 APU Alumni Korean Chapter이다.

(박준호 기자)



2011아주사의밤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기총 대표 회장 송정명목사와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 남석진목사(우)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미기총-한국 글로벌선진학교 MOU 협약

미주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정명 목사)와 한국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석진 목사) MOU 협약식이 19일 오전 12시 JJ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협약식에 앞서 박용덕 목사(미기총 총무)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김원락 목사(미기총 회계) 기도, 송정명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신명기 6:6-9의 말씀을 통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글로벌선진학교의 교육철학은 자녀손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좋은 배경이 될 것이라 믿어 두 단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표는 MOU 협약 서명식을 갖고 협약을 맺었다. 이날 축사는 이성우 목사 축도는 박세헌 목사가 맡았다. 이사장 남석진 목사는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전액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더

많은 MK, PK들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미주지역 단체와 교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2003년에 개교,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배출을 꿈꾸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교육 및 체력관리를 위해 태권도 수업을 필수로 하고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발전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강한 학습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근성교육, 글로벌 언어교육, 전문성을 위한 기본 지식강화, 관계능력 증진 교육 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본교는 250여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100여명이 졸업, 한국 명문대학교와 신학교로 진학하며 많은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GBC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이 주최하고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의 목사),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 남가주목사회(회장 김명대 목사), OC 목사회(회장 손태정 목사), OC기독교전도연합회(회장 손찬우 집사)가 공동 후원한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17일 윌튼장로교회(담임 김도석 목사)와 18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17일 음악회는 GBC미션코랄, 이은수 목사, 지명현 전도사, 구원화 사모, 조영석 전도사, 허훈 전도사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또한 남가주장로성가중창단과 랜디 김 빅밴드가 찬조 출연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말 4: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변영의 목사는 “예수님은 죄에 매어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해방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형제와 형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대학과/ 목회신학대학과, 사도복음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177 W. Olympic Blvd., #104 Los Angeles CA 90008.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꽃/파티꽃, 축하꽃다발/장례꽃, 한국 꽃병/다온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자기가 행복을 만듭니다. 아로마넨타5층. 213-387-7575. 3680 Whilshire Blvd, 5F, L.A., CA 90010.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BURN + PRINT.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한국 교회 반응

[미선라이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을 접하며 한국교회는 충격 속에 사대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교회는 "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교계 지도자들은 "통일은 도적같이 올 수 있다"면서 "냉철한 자세로 자유평화통일과 민족복음화와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할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2만 탈북자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보교회 모두 평화부드 염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는 19일 논평을 내고 조문단을 구성해 남북 갈등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파격적' 제안을 했다. NCKC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조문단을 구성,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CKC는 또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깨지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해 한국교회연론회(교회연론회), 미래목회포럼 등은 북한의 신앙 자유와 인권 문제를 먼저 지적하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문제를 거론했다. 한기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정일 위원장의 죽음은 북한 정세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북녘 땅에서 자유와 인권이 말살되고 종교가 억압당하며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동포들이 없기를

"통일은 도적같이 와...평화위해 냉철히 기도할 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북한에도 100여년 전 평양대부흥 당시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길 염원한다"며 "북한의 지도부도 이제 호전적인 사고를 버리고 역사와 국제정세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서민들의 숙원인 통일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연론회는 "북한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군정치와 그에 따른 핵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라며 "북한이 괄목할 만한 인권 개선을 보인다면 한국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아직도 북한이 남침 야욕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의 사망은 한반도에 정치적 불안정과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평화를 저해하는 어떤 도발이나 전쟁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예장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 총회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김정일 사망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기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냉철한 자세로 차분하게 기도하자=이날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접한 교계 인사들은 냉철한 자세로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 집중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주교는 "예측하지 못한 사망 소식에 무척 당황스럽다"면서 "무엇보다 정치적 풍랑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주교는 "이 사건이 순수하게 남북의 평화적 통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크리스천들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차분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김정일의 부재로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개방정책도 영향을 주게 되어 선교적 환경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A선교사는 "희망이 없던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며 "지금 한국교회가 북한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통해 참 희망이신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A선교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 상당수가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의지 심리가 마약이나 미신으로 향하고 있어 이럴 때

김정일 사망, 대북 선교에 긍정적 국내 선교단체·구호단체들 변화 전망

국내 선교단체와 구호단체 관계자들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 향후 대북 선교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대표회장은 19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난 60년 동안 통일을 위해 기도해왔다"며 "성도들의 간구와 신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회장은 "북한 후계 구도에 따라 예측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김정일 사망은 긍정적 신호로 본다"며 "선교 환경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교회세우기연합 이종만 사무국장은 "향후 정치적 변화에 따라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도 달라질 것"이라며 "김정은 세력에게 해외파가 많아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따라 교계, 위헌 소송·궐기대회 등 지속키로

'동성애 차별금지' 등 급진적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관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학생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 등을 적시한 조례안 통과에 대해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언 사회인권복지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큰 실망을 했다"며 "다음 선거에서 오늘 이 행동을 반드시 평가받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견 목회자 연합체인 미래목회포럼(대표 정성진 목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 개선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권

력 집단으로 만들고 정치세력화하는 조례는 반근대적인 입법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소속 회원 25만여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팩스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울골은 대저를 호소하고 나섰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통과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은 "일부 의원들이 정치논리에 교육양심을 팔아먹은 것 같다"며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안을 처리한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표

4대강 청정

뉴욕고양이 스타가게

뉴욕곰장 유육곰장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문의: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sbm.or.kr

코리안이 아파살아는 안됩니다. SBMI가 처방을 처방합니다.

SBMI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MAI MOVEMENT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비즈니스, 네트워킹, 마케팅, 언론,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건강, 여행, 부동산, 자동차, 패션, 음식, 생활, 취미, 동물, 환경, 사회, 정치, 경제, 과학, 기술, IT,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건강, 여행, 부동산, 자동차, 패션, 음식, 생활, 취미, 동물, 환경, 사회, 정치, 경제, 과학, 기술, IT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YooTravel!

유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대한항공 서울행 초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4가지로 즐기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 혜택

기사제보와 문서전송 후원을 받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물건> 미주크리스천 다우네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5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안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부 기관, 기독교연론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96-4400 Fax:(718)896-0074 E-mail: NY@chpress.net

LA: Y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3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역 주소	_____	
⑥ 사역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행차계)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고 ④ 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비워주세요

비판 교단 회원자격 제한 등 '전면전 선포' 한기총 임원회, 음해세력 강력대처 13개안 통과

[미선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을 비판해온 4개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 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하는 등 13개안을 통과시켰다.

길 대표회장의 사퇴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기총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과 고신, 합신과 예수교대한성결교 등 4개 교단을 행정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정보류가 되면 회의참석 불가 등 회원자격이 제한된다. 예장 통합 등 9개 교단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한기총 정상화를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기총은 조성기 최삼경 양병희 목사를 해당 교단에 총대교체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기총 질서대책위원회는 6개 교단이 '관상

기도' 문제 등을 이유로 현의한 G교회 원로 목사의 이단 관련 여부를 조사, 보고하기로 했다. 최근 한기총 임원선거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를 표시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 밖에 예장 합동보수(망원측)와 정통개혁(총회장 김인식 목사) 등 3개 교단과 옥수수재단(이 사장 황재철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승인했다. CBS, 들소리신문, 기독교보, 뉴스앤조이 등 교계 언론에 대해 한기총 출입금지를 결의했다.

임원회의 결과는 2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판단으로 강력한 국책을 마련했다"며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모으고 기도와 관심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정중동' 속 연대 등 기존 입장 고수 한기총으로부터 회원 자격 제한받은 4개 교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15일 4개 회원 교단에 대한 사상 초유의 행정보류를 단행했지만 해당 교단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고신, 합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대성) 교단은 16일 한기총 집행부의 업무 처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장 대신(총회장 강경원)은 이날 오전 임원회를 열고 한국 교회와 한기총이 바로 서는 데 모든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같은 입장을 취해온 9개 교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임원회에서는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김요셉 전 총회장의 출마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보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관계자는 "한기총이 몇

차례 사과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교단로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합기관인 한기총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장 고신(총회장 정근두 목사)과 합신(총회장 권태진 목사)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신은 지난달 11일 임원회가 결의한 것을 지속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당시 임원회에서는 총회한기총대책연구위원회의 보고가 나올 때까지 한기총에 대한 모든 활동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예성 등 일부 한기총 실행위원과 총대들은 16일 한기총 길자연 대표회장과 김운태 총무, 배인관 재정국장 등 3명을 공공 횡령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는 이들이 아이티 대지진 성금과 한기총 회관 건립기금 등을 전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0세 노부부 올해는 2억...자선냄비 또 놀랐다

이웃사랑의 대명사인 '빨간색 자선냄비'는 언제나 감동과 기적, 기쁨과 행복을 낳는다.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총정로 한국세군 본부에 끌려온 차림의 90세 노부부가 방문해 1억원씩 2억원의 수표를 자선냄비에 후원했다. 이들 부부는 이날 또다시 이번에도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모르게 해 달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돕는데 잘 알라"고만 당부했다. 그리고 "진짜로 오늘밤은 다리를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들은 2년 전 이맘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찾아와 5000만원씩 1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던 바 있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올해도 1억 1000만원권 고액 기부에서부터 감사편지, 금반지, 금귀고리, 교통카드, 각종 상품권 등 사랑이 가득 담긴 다양한 물품들로 펄펄 끓고 있다.

지난 16일 밤 서울 청계천 오간수교에 설치된 대형 자선냄비 모금함 수거 과정에서 1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이 가득 담긴 8개의 봉투가 발견됐다. 구세군은 19일 은행계수 과정에서 이 금액의 합계가 1174만5000원인 것을 확인했다.

한인1.5세 친구들의 회심이야기 (63)



연실적인 이슈 / 유스문화 이야기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돕는 유스 사역에 있어 그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우리 사역자들이 유스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배워야만 하는 이슈(Issue of Youth Culture Literacy)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1.5세 친구들의 회심을 위한 교육을 할 때 구원과 죄사함과 같은 불변의 진리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적합하고 타당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것이 가지는 강점들(교육의 효율성, 진정한 소통, 예방적 대응, 그리고 교양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역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잘 알게 되고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게 되어 문화적 적합성을 가진 사역을 행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적합성을 견지하는 사역의 첫 단계는 역시 우리 친구들의 문화를 잘 배우고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잘 배우고 잘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우리 사역자들이 최대한 그들의 문화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출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문화를 경험하는 그대로 동일하게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른 문화권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섬기고자 하는 곳의 문화

하기에 충분히 만큼, 또한 이를 실질적 교육 사역에 효율화 하기에도 충분히 만큼 배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친구들과 밀접하게 교통하여 위와 같은 사역자님들의 노력을 그들에게도 알리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유대감이 더해질 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화를 잘 배우고 이해하여서 문화적 적합성을 견지한 효과적 교육 사역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실천적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문화의 견지에서 교육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 안에 있는 해악된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의 문화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친구들에게, 사역자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비판자가 아닌 이해자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준 다음, 그들이 서로 자신들의 문화 및 그 구체적 내용 및 패턴, 그리고 행동양식 등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때 기술적으로 볼 때, 너무 의도적으로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처음에는 그저 사역자들 스스로 직접 경험한 그들의 문화에 대해 소소하게 잡담을 나누듯이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열고, 그 열린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여전히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미 비판적 성찰적 사고가 가

유스 문화에 노출함으로써 배우고 이해하며 대화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경적 해답 제시해야

를 배울 때 하는 것과 흡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보는 영화를 보고, 그들이 즐기는 TV프로그램들을 보고, 그들이 듣는 음악을 듣고, 그들이 자주 찾는 웹사이트를 찾아보고, 그들이 즐겨 하는 트위터나, 미니홈피나, 혹은 어플이나 하는 것들도 접해보고, 그들이 하는 게임들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로 가는 레스토랑, 쇼핑몰, 그리고 여타 다른 장소들도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옷과 신발 및 여러 물건들도 접해보는 것입니다.

이들 통해 그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관심분야와 오락거리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어울려 시간을 보낼 때 주로 무엇을 하고 지내며, 어디에 가고, 또 무엇에 대해 즐거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정서를 아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로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주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사역자 자신들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들의 경험들을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여 그들과 진실로 소통

능하며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성찰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열린 대화의 장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된다면,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존재하는 "허탄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세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하게 명심하여야 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문화에서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용기 있게 대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 그 배경을 면밀하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 교육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성경 구절과 성경적 혹은 기독교 신학적 테마들을 분명히 제시해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신들의 문화의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거부하여야 할지, 무시하여야 할지, 전문적인 도움을 요구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지 등—함께 고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월 주님의 가족 (마12:46-50)

48-50절은 주님께서 찾아온 가족을 만나주시지 않고 자신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족은 첫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말씀에 따라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됐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좇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10:38)은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유난 때에만 함께하고 불리하고 수고를 해야 할 때 도피하는 자는 가족이 아닙니다. 셋째, 주님을 가족처럼 내 집안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불지자나 내가 문밖에 서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내 맘에서 내 삶속에서 주님을 좇아낸 사람은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동고동락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화 농부의 자세 (마13:1-3)

어느 철학자가 "세상에 수많은 직업 중에 농부가 가장 나날과 닮은 직업을 지닌 자"라고 했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섭리사역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농부는 성실합니다. 파종기를 맞춰 씨를 뿌리고 추수기에 맞춰 추수합니다. 우리 주님도 성실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영혼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농부는 자기

기가 심은 것만 거두고자 합니다. 즉 순리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탄의 '한탕주의' 시험(마4:9,10)을 물리치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또 농부는 한해 농사를 망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다음해에 씨를 뿌려 나갑니다.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심 배, 육심 배, 백 배의 결실을 거두고야 맙니다. (딤후2:6).

수 감정주의 신앙 (마13:4-6)

56절 말씀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런 씨를 바로 썩어나거나 바로 죽는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유형은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광주의에 빠져 찬양하다가 금새 마음의 감정에 따라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도 안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감정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풍만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이

이안짱으면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것으로 여깁니다.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빈약하고 취약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근거를 감정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골5:3). 감정뿐 아니라 지식으로 또 의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목 세속적 신앙 (마13:7)

7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가시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눅8:14)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신앙인입니까? 주님을 믿다가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축복과 부를 얻으려고 주님을 좇는 이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하여 사탄의 가시에 찔리

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딤후6:10).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셨는데(마6:33)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마6:31)하는 문제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주님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을 만나면 타락하거나 배교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 마음이 가시떨기 밭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 옥토밭 신앙 (마13:8)

8절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 즉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잘 경작된 밭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주님께 연단을 잘 받는 마음은 돌과 같은 죄와 불의한 것들이 제거된 마음입니다.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잘 받는 성도만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히12:10,11). 둘째는 태양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눅

8:15)라고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신앙성정에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둘째로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마치 땅으로 영양분이 많은 밭입니다. 신앙적 거듭는 말씀 안에서 풍성한 경험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풍성히 받아 그대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좋은 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사) 사실을 알고 참된 신앙인의 옥토밭을 가꾸기 바랍니다.

토 있는 자 (마13:9-23)

주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12)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들을 귀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고 그 말씀을 실천하므로 더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고후9:10). 반면에 없는 자란 마음이 강박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그 받은 말씀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겨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약한 종과 같습니다. 영적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심고 실천하십시오. 씨는 심어야 열매를 맺고 말씀은 실천해야 그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는 자가 되어 복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꼭 계획된 교과과정 안에서 즉 성경공부 시간 등에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열린 대화들, 그 연장선에서 행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친구들의 문화에 대해 배태람이 되어서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논의 및 성경적 관점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언제 어느 때고 기회를 얻는 대로 지도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그들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문화에서 문제점만을 찾으려 혈안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상 그렇게 해서도 진정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문화가 가지는 순기능과 효과적 교육을 위한 좋은 정보들 또한 놓치기 십상일 뿐입니다. (계속)

21세기 선교한국의 미래를 (14면에서 계속)

6. 지금 한국 선교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의 이러한 선교의 새 역사 창조 '폭발적 시간'이라는 위기의 시간에 그 위기가 없는 한국 교회 선교지도자들의 불감증의 문제이다. 우리는 미시오 매트릭스의 숫자적 마력에 매혹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인간 발전과 인간 개발을 향한 무한도전은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파괴한 지 오래다. 진화론(theory of evolution)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킨 인간은 마침내

내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동성결혼(homosexual marriage)을 용납하고 성전환수술(sex reversal operation)이 보편화 되더니 결국은 생명복제(生命複製)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7. 한국 선교지도자들은 21세기 이러한 지구 종말론적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은 21세기 종말론적 시대에 적응하는 선교정책과 전략을 펼쳐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끝)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1. IHOP과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주제(제 1318호 9면)

기독교이단대책세미나가 1월 13일 오후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김재성 목사(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와 정이철 목사(퀘톤한인교회 담임)를 강사로 한 이 세미나는 'IHOP(국제기독교)과 신사도운동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재성 목사는 "이 신사도운동은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10년 전 이단으로 낙인찍혔다"며 미국 하나님의교회에서 2000년 8월 11일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다. 정이철 목사는 "신사도운동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새롭게 계시된 운동으로 늦은비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며 늦은비운동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했다. 주최 측은 세미나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신사도운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 미주 각 교계 단체 일본쓰나미 구호성금 모금(제 1329호 10면, 1331호 9면, 1332호 10면, 1336호 9면)



지난 3월 일본지진 쓰나미 소식 직후 미주 각 교계단체는 신문매체와 1,500여 통의 이메일 등을 통해 일본성금모금운동을 펼쳐왔다. 남가주교단연합회(회장 김정환선교사)는 베델교회, 나성한인교회를 비롯한 교회와 개인 19구좌를 통해 30,173달러가 모금됐으며 이중 광고 및 이메일, 인쇄물 발행 등의 비용을 제외한 23,934.55달러, 남가주교협(회장 민종기 목사)은 42,033.45달러가 모금돼 광고 등 홍보물 비용을 제외한 37,151.45달러를 전달했다.

한편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한창연 장로) 회장단이 4월 4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을 방문, 모금한 일본 구호성금 1만7천여 달러를 전달했다.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은 4월 30일까지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 등을 비롯, 모금된 일본을 위한 성금을 샌디아, 치바현, 관서, 동경 등 4, 5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일본선교사들에게 각 3,000-5,000달러씩 전달했다.

3. 미국장로교(PCUSA) 동성애자에게 목사안수 허용(제 1334호 1면, 2면)

미국장로교(PCUSA)가 미국에서 동성애

2011년 본지가 보도한

10대 뉴스

2011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더구나 12월 막바지인 17일에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일까지 생겨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를 긴장이 몰아넣기도 했다. 2011년 송년호를 제작하면서 본지가 보도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로컬 한인 뉴스를 중심으로 하고 순서는 기사의 경중이 아닌 1월부터 차례대로 게재했다. [편집자주]



자 안수를 허락한 4번째 주류교단이 됐다. 지난 5월 10일 열린 173개 노회가 투표한 동성연애자 안수관련법 개정안은 총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찬성해 통과됐다. 10년간의 토론을 거친 법 개정안은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로써 PCUSA는 지난 1972년 그리스도연합교회(UCC), 2003년 미국성공회 그리고 2009년 복음주의적 루터교회(ELCA)에 이어 33년간 지속되어온 동성애자 성직 임명 허용 논란에 진보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를 허용한 주류교단들이 교회분열의 수순을 이미 밟고 있는 것처럼, 탈퇴 움직임이나 복음주의적 장로교회로 교단을 바꾸는 움직임과 함께 이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PCUSA 한인교회 연합체인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는 교회의 세속화를 개탄하면서 11월 '이 같은 결정은 복음적인 노선을 지키는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들과 미국교회들에게 강요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4. 미주 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이단 탈퇴자들 기자간담회(제 1339호 9면)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대표 한선희 목사)는 한국에서 신천지, 정명석, 안상홍, 안상홍종교, 류광수 다락방 등 이단집단에 현혹돼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돼 교회의 품에 안긴 여섯 청년들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여섯 청년들은 그들이 이단에 빠져 활동하게 된 경위와 그곳에서 빠져나와 한국이단상담소(소장 진용식 목사)에서 개종 교육을 받고 회심할 때까지의 일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여섯 청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하

며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공부가 형식위주에서 탈피해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5. 뉴욕 주 동성결혼 합법화...미역 사전복(제 1340호 1면)



뉴욕 주에서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뉴욕 주 상원은 6월 24일 밤 10시경, 33대 29로 앞서 주 의회 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결혼평등법안'(Marriage Equality Act)을 통과시켰다. 뉴욕 주는 이로써 미국에서는 여섯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됐다. 이들 주 가운데서도 뉴욕 주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서, 향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일반화 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결과에 힘을 받은 동성애자 권익옹호단체들은 뉴욕 주에서의 '승리'를 발판삼아 타 주들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뉴욕 주 결혼평등법 통과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개인적 소신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상승기류로 치솟는 동성결혼 찬성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될 정도로 미국역사에 결정적인 과를 범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6. 뉴욕교협 주최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성료(제 1351호 10면)



"뉴욕이여, 생기로 충만하라"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이 주최한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가 지난 9월 9일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시작된 사흘

간의 집회를 마쳤다. 감사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는 "세계 제일의 도시 뉴욕은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라며 "할렐루야대회가 뉴욕에 복음의 물결기가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7. SB48주민발의안 청원 7,356표 부추, 무산(제 1356호 1면)



동성에 교육 법안인 SB48 저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청원 7,356표에 못 미치는 497,404표로 집계됐다. 결국 SB48 저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청원이 무산. 따라서 2012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SB48이 무산된 이유는 미국교단 중에서도 주요교단이 동참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교회는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미주복음방송, 남가주교계, OC 교계와 단체들이 앞장서 한 달 동안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표가 무효가 되어 결국 무산됐다.

8. 뉴욕교협 분열 위기...교회연합회 결성(제 1358호 10면)



37회 정기총회를 마친 뉴욕교협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 24일 총회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25일 김영목 목사와 101명이 설립추진위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가칭)의 결성을 공표했다. 성명서는 "예배당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와 목사와 성도들을 감시하고 발언을 막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삼십여명의 분열기와 일방적 회의강행 △증경회장의 편파적 성명서 발표와 발언권 제한 △감사 사인

없는 37회 총회는 원전적 무료 △회장후보의 회비체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막고 △WCC를 반대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연합했다고 밝혔다.

9. 청교도신앙 무너지는 미국위해 기도하자(제 1360호 11면)



인종과 교단을 뛰어 넘은 초대형 기도집회가 11월 11일 파시디나 로즈빌에서 거행됐다. 'A Line in the Sand'("이때를 위하여 아님지 누가 알겠느냐" 예:4:14)를 표어로 삼고 시작된 본 기도대회는 백인교회는 물론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 유대인까지 참석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진행됐다.

한국이 주관하는 집중기도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송정명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와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협 회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됐다. 본 기도회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 목사), 남가주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 OC 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 KCCC(대표 김동환 목사) JAMA(대표 김준근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10. 퀸즈장로교회 2대 담임 박규성 목사 위임(제 1364호 10면)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가 지난 11월 저녁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로써 설립 38년된 퀸즈장로교회는 2대 담임을 맞았다. 장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내년 2월말 본 교회 설립기념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규성 목사는 "전도사시절부터 교회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장 목사님내외분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민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38년간 장 목사님을 도왔던 그 열심을 제게도 허락해주셔서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사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향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돌!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향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향안 목사 저
- 판형 : 4×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향안 목사가 20년간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성탄절 문화의 새 반향!

Why Christmas?

- 왜? 크리스마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가?
-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만들어 가는가?
-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2012 복음적인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판형 : 신국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방설교 제공
- 주문 수령인름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철화, 김동, 소망 결단기 있는 영상비디오 & CD

www.kcdc.net

824-3004, 5004